

임화의 '이식문화론' 재고

방민호*

I. 임화의 '이식문화론'에 대한 비판들

한국근대문학사 연구의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임화의 이른바 '이식문화론'을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임화의 「新文學史의 方法」¹⁾을 두고, 또 그의 「概說 新文學史」²⁾를 두고 그 비주체성에 대한 비판은 최근에 이르러까지 간간이,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 그 비판의 근원이 어디로까지 환원되는가를 논증할 수는 없다. 다만 이같은 비판 경향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시도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이 국문학계 및 국사학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때라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하나의 예는 김윤식과 김현의 공저로 간행된 『한국문학사』이다.³⁾ 또한 한국의 근대소설이 전통소설의 서사구조를 계승하고 있음을 논증

* 국민대학교 전임강사

1) 林和, 『文學의 論理』, 학예사, 1940 수록.

2) 「개설신문학사」란 「개설신문학사」(『조선일보』, 1939.9.2.-10.31.), 「신문학사」(『조선일보』, 1939.12.8.-12.27.), 「속 신문학사」(『조선일보』, 1940.2.2.-5.10.), 「개설조선신문학사」(『인문평론』, 1940. 11.-41.4.) 등 약 1년 8개월의 걸친 일련의 글들에 대한 총칭으로서 임규찬에 의해 명명된 것이다. —임규찬, 「임화 '신문학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임규찬·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432면 참조. 조선 신문학사의 형성과정에 관한 임화의 글로는 이 외에도 「조선신문학사론 서설」(『조선중앙일보』, 1935. 10.9.-11.13.) 「소설문학 20년」(『동아일보』, 1940.4.12.-20.) 등이 있다.

하고자 했던 내재적 발전론자, 조동일 역시 임화의 문학사론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임화의 '이식문화론을 "식민사관과 유물사관이 결합된 형태"⁴⁾의 역사학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임화는 봉건사회가 발전해야만 근대사회가 탄생될 수 있다는 유물사관을 대전제로, 또 아시아적 정체성 이론을 소전제로 삼아, 우리의 경우에는 역사발전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근대사회를 스스로 이룩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문학 역시 이식과 모방을 통해서만 근대문학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강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임화도 실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문학의 양상이 전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었고, 그 점을 길게 거론했다."⁵⁾

김윤식과 김현 공저의 『한국문학사』가 내재적 발전론의 이론사적 맥락에서 임화를 비판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김윤식은 이와는 다른 이론적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임화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임화의 문학사 방법론이 임화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제도적 장치로서의 근대라는 관념에 이끌린 나머지 형성된 것이었다고 본다. 임화는 스스로 제도적 장치로서의 근대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따라서 의식상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토대형'의 문학사론, 즉 유물사관에 입각한 문학사론에 머물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제도형'의 문학사론에 가까운 방법론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의 문학사적 관념이란 무엇인가. '근대'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낸 것이자 그 자체라는 것을 승인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문화적 유형은 제도적인 문학사라 규정할 수 있다. 임화가 이 사실을 깊이 알아차리지 못했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그가 내세워놓은 신문학사의 방법론은 위의 세 가지 중

-
- 3) 구중서에 따르면 임환의 이식문화론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구중서, 「서구문학의 이입과 근대 기점」, 『한국문학과 역사의식』, 창작과 비평사, 217면 참조. 그는 김윤식·김현의 공저가 한국문학사의 전통연결을 주장하는 이론사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 4) 조동일, 「근대문학 형성과정론 연구사」, 『국문학연구의 방향과 과제』, 새문사, 1983, 146면.
 - 5) 위의 책, 같은 면.

이것에 제일 가까운 것이다. ... 세 번째 방법론에 매달릴 경우엔 합리주의의 노예가 되고 말 위험에 봉착할 것이다. 임화 그는 ... 어느쪽도 투철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굳이 등급을 매긴다면 그의 방법론은 세 번째 방법론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사를 양식의 역사라고 표나게 내세우고 거기에는 그의 친근함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제일 낯익은 것이었다. 신소설 연구에서 그가 제일 생산적인 업적을 낳은 이유도 여기서 말미암았다.⁶⁾

이에 따르면 임화는 그 자신 근대적 제도의 합리성의 산물인 탓에 “新文學이 西歐의인 文學 「장르」(具體的으로는 自由詩와 現代小說)를 採用하면서부터 形成되고 文學史의 모든 時代가 外國文學의 刺戟과 影響과 模倣으로 一貫되었다 過言이 아닐만큼 新文學史란 移植文化의 歷史”⁷⁾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된다. 그러나 임화의 입론을 미완성의 제도형 문학사론으로 비판하고 있는 김윤식의 본의는 오히려 제도형의 문학사론의 합리성 내지는 적실성을 입증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다른 글을 통해서 확인된다. 「문학사 기술의 세 유형」이라는 논문을 보면 그가, 김동인이 염상섭의 소설을 보고 놀란 이유를 그것이 일본적이라는 데서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동인은 작품을 쓸 때 구상만 일본어(일본소설적 사고체계)로 하고, 표현은, 그 때도 '조선어'로 하였는데 비해 염상섭은 구상은 물론 표현까지 일본어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염상섭의 초기 3부작 「표본실...」 「제야」 「암야」는 한국작품이 아니다. 구상도 표현도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말이고, 일본문체이며 일본근대소설이다. 말을 바꾸면 염상섭의 초기 3부작이야말로 진짜 근대소설이다. 염상섭은 일본근대소설이라는 제도(체계) 속에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의 소설은 국적을 떠나, 근대소설일 수가 있었다. 또 말을 바꾸면, 염상섭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 따위가 있어 「표본실...」의 주인공 X라든가, 「암야」의 Y라든가 「제야」의 최정인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일본근대소설이라는 제도가 먼저 있었고, 그것이 염상섭으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의 내면을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두고 3·1운동 실패 뒤의 암담한 현실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이야말로 피상적인 것이라고 볼 것이다. 김동인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⁸⁾

6) 김윤식, 『이식문화론 비판』,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서울대출판부, 1987, 93-5면.

7) 임화, 앞의 책, 827면.

8) 김윤식, 앞의 책, 111-112면.

비록 김동인의 판단에 대한 추단으로 마지막 문장을 맺고는 있으나 이같은 진술에는 염상섭의 문학이 김동인의 그것보다 가치로운 것은 염상섭이 김동인보다 일본근대소설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더 많은 수혜자였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그가 임화의 미완성의 제도형 문학사를 비판한 본의가 제도형 문학사의 설명력을 강조하는데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그가 임화의 '이식문화론'을 내재적 발전론의 맥락에서 비판하던(『한국문학사』) 방식에서, 서양 및 일본의 근대라는, 제도적 장치의 지배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비판하는 방식으로 시각의 전환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의 그는 1970년대 초반의 그와는 달리 푸코를 수용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근대성론에 기운 일종의 '이식문화론'자가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임화는 과연 '제도형'의 문학사론에 가까운 '토대형' 문학사론에 그치고 말았던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그는 식민사관과 유물사관이 결합된 역사 패러다임에 지배된 나머지 '이식문화론'을 펼쳤거나 또는 그 자신 제도로서의 서양(및 일본) 근대의 산물이었던 탓에 미완성의 '제도형' 문학사론을 펼친 데 그친 것일까.

II. 임화의 문학사론에 대한 적극적 평가들

바로 여기서, 임화의 신문학사론에 대한 내재적 발전론(김윤식·김현·조동일) 또는 포스트구조주의적 관점(후기 김윤식)에서의 비판과는 달리 조선 근대문학의 수렴과정에 대한 임화의 연구 및 그 문학사 방법론의 의의를 곁다 평하려는 흐름이 있었음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먼저 구중서는 김윤식과 김현의 판단을 문제시한 바 있다. 두 사람이 “新文學이 西歐的인 文學 「장르」(具體的으로는 自由詩와 現代小說)을 採用하면서부터 形成되고 文學史의 모든 時代가 外國文學의 刺戟과 彰響과 模倣으로 一貫되었다 過言이 아닐만큼 新文學史란 利殖文化의 歷史”라는 문장을 근거로 그를 한국문학사의 전통을 단절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新文學史의 方法」의 여섯 개 장(대상, 토대, 환경, 전통, 양식, 정신) 가운데 '전통'의

장에는 그의 이론을 '이식문화론'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주체성 강조가 나타나다는 것이다. 그가 근거로 인용한 대목을 포함하는 대목을 여기에 다시 원문으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外來文化의 輸入이 우리 朝鮮과 같이 移植文化, 模倣文化의 길을 걷는 歷史의 地方에서는 遺産은 否定될 客體로 化하고 오히려 外來文化가 主體的인 意味를 띠우지 않는가? 바뀔 말하면 外來文化에 沈溺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것이 完全히 修行되기는 文明人과 野蠻人과의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東洋諸國과 西洋의 文化交涉은 一見 그것이 純然한 移植文化史를 形成함으로 종결하는 것 같으나, 內在으로는 또한 移植文化史 自體를 解體할나는 過程이 進行되는 것이다. 즉 文化移植이 高度化 되면 될수록 反對로 文化創造가 外部로부터 成熟한다.⁹⁾

논자 역시 구증서의 견해를 접하지 못한 가운데 위의 인용문을 들어 임화의 '이식문화론'은 "조선에 있어 근대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사실 인식의 부재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임화에게 있어 이식의 문학사리는 것은 사실의 인식 및 그 해석의 문제이지 방법론에 깃들인 시각의 문제는 아니었는지도 모른다"¹⁰⁾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구증서는 김윤식의 임화 비판을 "원문 비평에 있어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나아가 이른바 발전론의 시각에서 본 근대문학사 형성론의 한계를 갈파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소 길게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상 민족의 고유문화라는 것은 원래 단지(單子)처럼 격리되어 탄생하거나 지속 되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 속에서 부단히 인근문화와 외래문화에 교섭되면서 민족주체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결과로서의 유산일 것이다.

특히 20세기 초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서구문학의 장르들, 즉 자유시·단편소설·장편소설·희곡·평론·아동문학 등은 전대의 한국 고전문학기 장르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식상의 조직과 규격에 있어 상당히 새롭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식론은 반드시 기피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한국문화의 전통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변모 발전

9) 임화, 앞의 책, 831-32면.

10) 줄고, 『숙명과 그 극복의 문제-김윤식론』, 『비평의 도그마를 넘어』, 창작과 비평사, 2000, 154면. 위의 글은 그보다 먼저 『무애』(열음사, 1998) 창간호에 게재된 바 있다.

된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한국 고전문학과 이른바 신문학 사이의 전통연결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임화의 이식문화론은 전통론과 어울려서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¹¹⁾

위의 견해는 내재적 발전이라는 관념에 내포될 수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될 만하다.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서 이식이 라는 현상을 수용한다 해도 주체성은 폐기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통은 이 이식의 계기를 포함하면서 형성된다는 것이 구중서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물질적 토대를 신문학과 문학사 기술의 기반으로 언급해 둔 데에서 유물론적 도식성과 지나친 단순성이 드러나고, 신문학을 곧 근대문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대와 근대문학의 기점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피상적인 논리전개에 머물러 심층적인 고구와 예증을 보이지 못한 점 등에서 임화 방법론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하였다.¹²⁾

한기형 역시 임화의 문학사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속한다.¹³⁾ 임화에 대한 구중서의 판단은 「新文學史의 方法」(『동아일보』, 1940.1.13-20)을 일차적으로 자료로 삼은 것인데 반해, 한기형의 판단은 「소설문학 20년」도 포함하지만 주로 『조선신문학사론 서설』(『조선중앙일보』, 1935.10.9-11.13)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조선신문학사론 서설』은 임화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필자 병와(病臥)한지 년여(年餘)에 하등의 자료도 없이 단지 낡은 수첩 일개의 힘을 빌어 이 소설(小說)을 여지(旅地)에서”¹⁴⁾ 작성한 것이므로 구체적 자료에 입각한 실증적인 논문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곳에서 취급되는 문학적 대상은 결코 단순한 평화스러운 ‘학문적’ 연구와 그 흥미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현실의 필요의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제는 우리들 앞길

11) 구중서, 앞의 책, 243면.

12) 구중서, 위의 책, 243면.

13) 한기형, 『林和의 문학사 서술에 대한 관점의 몇 가지 문제』, 『한국근대문학사의 생점』, 창작과비평사, 1990.

14)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 『조선중앙일보』, 1935.10.9, 임규찬·한진일 편, 앞의 책, 315면에서 재인용.

에 산같이 쌓인 잡다한 난관을 극복할 문학적, 창조적인 실천의 생·사상적 문제와 밀착되어 있다."¹⁵⁾ 라는 단언이 보여주듯이, 카프 해체 이후의 카프적 실천을 위한 관념적 논리 마련을 위한 성격이 강한 글이다. 따라서 그 '직접적' 실천성에서 임화 문학사론의 가치를 찾음은 난점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을 들어 "문학사 서술관점과 안목에서의 과학적 방법론 획득"으로 적극 평가함은 이후의 『개설 신문학사』나 「신문학사의 방법」 같은, 더 성숙한 글을 염두에 둘 때 타당하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근대문학의 기원에 관해 임화가 잘못 언급한 것이 있다면 이는 고전과 현대문학의 계기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데 미흡했던 식민지 시대 학계의 전반적 수준을 고려하는 가운데에서 평가할 문제이며, 이 때문에 임화의 문학사론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를 일률적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한¹⁶⁾ 그의 견해는 당대의 조선 근대문학 형성사 연구 수준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둘 만한 판단이다. 실제로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로부터 약 5년 뒤에 씌어진 『개설 신문학사』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조선에서의 근대문학 형성론을 구축한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즉 임화의 근대 문학사론은 그 '처녀적' 성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임규찬에 와서도 임화를 몰주체적인 이식문화론자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론은 이어진다. 그에 따르면 근대문학의 이식성에 대한 임화의 지적들은 "근대주의자' 임화의 문학사가로서의 관점의 적나라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 실제 문학의 흐름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것"¹⁷⁾이다. "임화는 나름대로 당대 문학현상(창작·비평·번역)을 분석한 결과로 이식문화사라 평가"했으며 따라서 "이 역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임화가 근거로 하고 있는 실제 문학현상에 대한 엄밀한 비교 분석"¹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구중

15) 위의 책, 318면.

16) 한기형, 앞의 책, 272면.

17) 임규찬, 「임화 '신문학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임화 신문학사』, 437면.

18) 위의 책, 같은 면.

서와 한기형 등이 언급하고 있듯이 임규찬에 있어서도, 임화의 문학사론의 한계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임화의 입론은 일방적으로 몰주체적인 이식문화론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와 같은 변론에 덧붙여 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¹⁹⁾

한편, 임화의 견해를 몰주체적 시각으로 비판하는 입장에 대한 가장 논리적이면서 종합적인 반론이 신승엽에 의해서 행해진 바 있다. 「이식과 창조의 변증법—임화의 '이식문화론'의 정당한 이해를 위하여」(『창작과 비평』, 1991, 가을호)에서 그는 먼저 우리문학연구회의 「새로 쓰는 민족문학사」(『한길문학』, 1990.5.)와 전승주의 「임화의 신문학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88)를 임화의 문학사론에 대한 속류적 해석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 요건은 임화가 이른바 '조선적' 특수성을 몰각한 몰주체적 이론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임화의 문학사론을 불완전한 '제도형' 문학사로 간주한 김윤식의 견해를 구중서가 지적하였던 바 원문 해석상의 오독을 수반한 잘못된 비판으로 재비판한다. 특히 그가 문제시하는 것은 임화의 전통 개념에 대한 김윤식의 피상적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임화의 전통 개념의 요체는 「신문학사의 방법」이 아니라 그 이후에 씌어진 「고전의 세계-혹은 고전주의적인 심정」(『조광』, 1940.12)에 명확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글에서 임화는 전통을 “고전의 비연속성을 연속시키는 것”²⁰⁾으로 규정했는데, 이처럼 전통을 고전의 비연속적 연속으로 이해하면서 임화는 고전들의 연속을 통한 “진정한 근대문학의 수립”²¹⁾을 꿈

19) “결과적으로 신문학은 '고유한 가치를 새로운 창조 가운데 부활시키는 문화사의 한 영역'이라는 것이 임화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화의 분석은 1930년대 후반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고전문'의 논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근현대문학사의 또 하나의 역사적 단절기로 파악된, 그리하여 정식적 공백기로 칭해지는 1950년대의 '전통 논의'와도 깊은 관련을 갖게 된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 임화가 문학사방법론에 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구체적 평가의 잘잘못을 떠나 매우 뛰어난 연구자적 안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위의 책, 439면.

20) 신승엽, 「이식과 창조의 변증법」, 『민족문학의 넘어서』, 소명출판, 1999, 98면에서 재인용.

21) 위의 책, 103면.

꾸었다는 것이다. 신승엽은 임화의 본격소설론이 자신의 관점을 정당화해준다고 파악한다.

여기서 임화가 이식문화론에 근사하게 도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자. 경향소설이나 그 이전의 춘원 등의 소설이 불충분하게나마 본격소설을 지향하였지만 조선 문학 특유의 이식성으로 하여 그 변화의 양상이 대단히 혼류, 병렬 혹은 중첩되었으며, 그리하여 우리 문학에 있어 근대적인 것의 완성을 도모하고자 하던 광범한 노력의 반영인 본격소설에의 지향이 의연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본격소설론의 논리에는 이미 이식문화론의 맹아가 충분히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본격소설론에서 이야기하는 소설에서의 고전성이라는 것도 실상 '완미한 근대성'을 일컬음에 다르지 않다. 요컨대 여기서도 임화는 이식성을 탈피하여 진정한 근대문학을 수립하는 것을 당대문학의 과제로 삼아 과거의 소설사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²²⁾

결국 신승엽에 따르면 임화의 문학사론은 '이식문화론'이라는 몰주체적 시각으로 볼릴 만한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조선에서의 완미한 근대문학의 수립이라는 이상에 바탕하여 이식 단계를 채 벗어나지 못한 근대문학의 한계를 타파하고자 노력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신승엽의 결론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완미한 근대문학 또는 진정한 근대문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인 문학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서의 근대(자본주의적 발전과정)와 민족적 특수성에 대한 통일적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²³⁾며 임화의 문학사론은 바로 그러한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자신 임화의 문학사론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진정한 근대문학의 구체적 형태에 관한 신승엽 자신의 견해 역시 추상적인 차원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못한 듯하다. 과연 임화가 의도했던 바, "移植文化史 自體를 解體한다는 過程" 즉 文化移植이 高度化되면서 내부로부터 성숙해 가는 文化創造란 어떤 구체적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 신승엽의 논문은 보편성과 개별성의 통일을 논하고 있으나 근대문학으로서의 보편성에 치우친 나머지 임화의 문학사론을 논리 정합적인 것으로 평가

22) 위의 책, 102-3면.

23) 위의 책, 105면.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과연 임화의 논리의 한계는 없었던 것일까.

III. 임화의 문학사론에 나타난 문제의식의 변화와 『문학의 논리』

지금까지 살펴본 임화의 문학사론에 대한 비판과 변호의 시각들은 그 근거를 『개설 신문학사』나 『신문학사의 방법』, 그리고 『조선신문학사론 서설』 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자들과 후자 사이에는 약 5년의 격차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차이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조선신문학사론 서설』과 그 이후의 『개설 신문학사』, 『신문학사의 방법』 사이에 놓인 시간적 거리는 드라마틱한 일제하 조선사의 전개과정에 비추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임화에게 있어 그만큼 문제의식상의 큰 낙차가 있을 법하다. 구체적으로,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이 KAPF의 해체를 전후로 한 절박한 위기의식의 산물이자 동시에 KAPF의 조선근대문학사상의 위치라든가 의의를 밝히려는 문제의식의 산물이었다면, 『개설신문학사』는 그와 같은 직접적이고 절박한 실천적 과제와는 일견 거리를 두고 조선 근대문학의 태동이라는 문학사적 사실을 고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기술이 항상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의 수집과 이해에서 시작함은 하나의 상식이다. 그러나 사료는 극복되면서 역사적 개괄이 발생하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 역사적 개괄이 또한 역사적 투시력을 놓고 거기서 일관한 역사적 법칙이 발견되어 비로소 기술이 가능하게 된다. 그 기술 가운데 그 역사의 고유한 과정과 발전의 노선이 표현된다.

문학사라고 사정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초적 또는 보조적인 제연구가 태무(殆無)한 위에서 신문학의 기술적 통사가 씌어지지 못함은 명백한 일이다.

통사에 한 기초가 될 중요 자료의 정리, 연결관계의 천명, 문제의 발견과 체계화의 시험 등이 자연 나의 한계요 또한 도달점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영역에 있어 전연 그 아마튜어인 필자가 대담한 기도를 시험함은 훌륭한 일련의 통사를 열망하는 단순한 염원에서이다.²⁴⁾

24) 임화,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9.2-3. 임규찬·한진일 편, 앞의 책, 12

이와 같은 한계인식의 표명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에의 의욕과 몰두이다. 역사적 개괄은 사료의 수집과 이해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문학사라 해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대목에서 이러한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각은, “오늘날에 있어 우리 조선문학사상(朝鮮文學史上)의 모든 사실에 대하여 엄밀한 과학적 평가를 내리고 그 복잡다단한 역사적 발전의 전노정 가운데서 일관한 객관적 법칙성을 찾아내어 한 개의 정확한 체계적 묘사를 만든다는 것은 실로 곤란한 사업이면서 또한 가장 존귀한 일의 하나가 아니면 아니된다.”²⁵⁾라고 했던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의 문제의식과 언뜻 보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두 문제제기가 모두 객관적인 역사적 법칙이라는 보편성에 탐닉해 들어가는, 임화의 보편주의적 또는 근대주의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자의 판단에 이것은 임화가 후기에까지 떨쳐버리지 못한 사유방식상의 한계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는 다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같은 사고방식상의 한계 속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임화의 문제의식의 심화는 확연하다. 『조선신문학사론 서설』이 카프의 문학사적 성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개설신문학사』는 조선에서의 근대문학의 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임화는 조선근대문학에 대한 관념적이고 연역적인 설명으로부터 '사실'의 수집과 집적을 통한 개괄화의 시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 두 방법이 가져다 주는 차이는 심대하다고 할 만하다. 전자가 부르조아 문학의 쇠퇴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발흥이라는 세계문학사적인 시야를 조선에 '특수하게' 적용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후자는 조선 사회에서 근대문학이 어떻게 태동, 자기 전개 능력을 갖기에 이르렀는지를 사실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이 된다. 즉, 『개설 신문학사』의 임화는 역사적 법칙에의 탐닉이라는 보편주의적 한계는 여전히 갖고 있되 조선 신문학사 형성을 이루는 개별적 '사실'들에 집중하여 이를 질서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移植”이란 바로 그와 같은 '사실' 집적의 결과 얻어진 일개 관념이

면에서 재인용.

25) 위의 책, 315-6면.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移植文化史 自體를 解體할나는 過程” 역시 단순한 관념적 소산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신문학사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과 『개설 신문학사』의 집필 시기 사이에는 ‘사실’, 즉 ‘조선적인’ 고유성을 발견하고 논리화하려는 노력이 펼쳐졌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는 그의 유일한 비평집 『문학의 논리』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비평이야말로 과거의 논리를 지양하고 새로운 논리를 획득해 가는 살아 있는 문학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의 비평집에 실린 「朝鮮의 批評의 精神」이라는 평문은 시사점이 있다.

朝鮮의 文學批評은 오늘날까지 그 어느 것을 勿論하고 大部分의 作家에게서 적지 않은 불만을 사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作家가 아닌 다른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種類的의 支持와 滿足感으로써 마지되었다는 것도 亦是 否認할 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그 善惡의 判斷이나 이곳에서 發生하고 隨伴되는 여러가지 問題를 뒤에 미려놓고 라도 爲先 우리 朝鮮의 文藝批評의 가장 特徵의인 性格의 表現이 아닌가 합니다.

… 다시말하면 오늘날 까지의 朝鮮의 文藝批評은 作家, 作品과 審美學의으로 關係하는 대신에 더 많이 社會學的 또는 政論的으로 交涉한 것입니다. 이것이 朝鮮의 批評이 다른 諸外國의 文藝批評과 本質的으로 그 性質을 달리하는 主要點일 것입니다. 즉, 政論的 性質을 多分히 가진 社會的 批評 그것입니다.²⁶⁾

여기서 임화는 조선적 비평의 특질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그것은 “政論的 性質을 多分히 가진 社會的 批評”이라는 점에서 여타 나라의 비평과는 현저한 거리를 갖는다. 그 같은 진술의 올바름 여부와 관계 없이 여기에 나타나는 “조선적”이라는 말은 임화가 천착했던 고유성의 범주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이 평문말고도 여러 글에서 예의 이 “조선적”이라는 관형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신승엽이 완미하고 진정한 근대문학의 이상을 제기한 것으로 본 「本格小說論」에서도 이와 같은 ‘조선적’ 고유성에의 관심은 두드러지는바, 이때 “移植”은 조선적 고유성에

26) 임화, 앞의 책, 685-7면.

대한 특징화로서 언급된다.

그러나 朝鮮小說의 傳統은 不充分하게나마 依然히 本格小說에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朝鮮文學의 移植性, 즉 한 階級の 小說을 內容으로나 構造로나 完成하기 前에 또한 潮流가 드리워서 交代하고 相爭하여 一種의 混流, 또는 並列, 혹은 墨積의 相을 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먼저도 言及한 것처럼 그것은 完成된 傳統的 性格으로서가 아니라 未完의 그러므로 完成에의 志向으로 表現된 것이었다.²⁷⁾

이처럼 임화에 있어 “이식성”은 조선문학의 고유성임과 동시에 타과되어야 할 고유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식성은 조선소설이 자기를 완성해 가는데 따르는 필연적 제약조건으로 언급되며 이를 주체성의 부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예를 하나만 더 든다면 「통속소설론」의 단편소설 ‘주류설’을 꼽을 수 있다.

實로 短篇小說은 우리 作家들의 가장 本格的인 活動領域이라 看做하여 無妨하고, 또한 短篇小說 自體의 質인 消長은 곧 우리 文學의 藝術性의 高低를 알아 내는 「바로미터」로 생각하여 足한 點이 있다.

이 事情은 勿論 아직 朝鮮文學이 大長篇에다가 제 思想的 運命을 托할만큼 成長하지 못한 證據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通俗小說의 方法이나 影響이나가 短篇의 領域을 犯했다 할제 우리는 옷깃을 고치고 생각을 가다듬지 않을 수가 없다.

조선소설이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형성·발전되었음은 하나의 ‘조선적’ 고유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소설의 유아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족할 만한 고유성은 아니라는 것이 임화의 생각임을 위의 인용문은 보여 준다. 이처럼 “이식”은 조선 근대문학의 독자적 성격을 가능케 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것을 제약하는 일개 개념으로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이식”성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논자가 생각하는 임화의 한계는 바로 이 같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다. 이 점에서 임화의 ‘이식문화론’은 후대의 이론가 및

27) 위의 책, 370면

연구자들에 의해 몰주체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남기게 된다. '조선적인' 고유성의 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채만식이나 이태준 같은 작가와는 달리 근대성이라는 보편 관념에 한발 더 치우쳐 있었으며 서양이나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조선적' 문학을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채만식은 조선의 전통적인 서사양식과 서구적인 고전을 혼성적으로 페로디하는 방법을 통해 독자적인 조선 근대문학의 수립을 실험하였으며²⁸⁾ 이태준은 조선소설의 단편 중심성을 살려 완미한 단편소설의 길을 걷고자 했다.

그러나 흔히 근대주의자로 시종한 듯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임화가 이처럼 '조선적인' 고유성에 매료되어 있었음은 그의 문학사 연구가 후대의 밑거름이 될 만큼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적 근거였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이 어떻게 싹트고 성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임화 연구의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제 통치 아래서 일본문학과는 다른 조선의 문학의 길을 고민했던, 시인이자 비평가 임화의 문학적 '실천'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8) 줄고, 「채만식문학에 나타난 식민지적 현실 대응양상」, 서울대학교박사논문, 2000.

참고문헌

- 구중서, 『한국문학과 역사의식』, 창작과비평사, 1985.
- 김윤식,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서울대출판부, 1987.
- 방민호, 『비평의 도그마를 넘어』, 창작과비평사, 2000.
- _____, 「채만식문학에 나타난 식민지적 현실 대응양상」, 서울대학교박사논문, 2000.
- 신승엽, 『민족문학을 넘어서』, 소명출판, 1999.
- 임규찬·한일진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 林 和, 『文學의 論理』, 학예사, 1940.
- _____, 『개설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9.2-10.31.
- _____,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12.8-12.27.
- _____, 『속 신문학사』, 『조선일보』, 1940.2.2-5.10.
- _____, 『개설조선신문학사』, 『인문평론』, 1940.11-41.4.
- 조동일, 『국문학연구의 방향과 과제』, 새문사, 1983.
- 한기형 외,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비평사, 1990.